

개요 2015년도는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견제 및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공감의정’, ‘실천의정’, ‘창조 의정’ 실현에 집중해 도민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자 노력한 한해였다.

안건처리 2015년 총 8회 120일간의 회기운영(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6회 60일)을 통해 조례·규칙의 제·개정 142건, 예산·결산 16건, 건의·결의 12건, 동의·승인 27건, 기타 62건 등 총 259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분야별 성과 도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생활임금 조례’를 각각 제정하는 등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왔다.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 촉구,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가뭄대책 마련 촉구와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에 주력했다.

아울러 지역 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포문화권발전지원 특위’, ‘3농혁신 등 정책 특위’를 구성해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도민권의 대변을 위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4회 36명 110건), 당진항 도계분쟁 관련 긴급현안질문과 5분 발언(72명 78건)을 적절히 활용해 집행부의 감시·견제에 최선을 다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

2015년 11월 6~19일(14일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산하기관(충남연구원 외) 등 82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423건(시정 47, 처리 225, 제안 151)의 조치를 요구했다.

52일간 99개소의 민생현장 및 사업장 등을 방문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도민의 불편사항 24건을 처리하는 등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에 노력했다.

정책제안을 위한 6개 연구모임(88명)을 운영하며 결과를 조례발의 등 정책자료로 활용도록 집행부에 통보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해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사이버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동영상 제작해 홈페이지 및 SNS에 홍보했으며 영상과 회의록을 동시에 보는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운영했다. 또한, IT시대에 걸맞게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본회의·상임위 등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18만5천801건이 접속했다.


의회를 찾는 내방객 홍보를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동영상 상영하고 의회연혁, 하는 일, 원구성, 주민참여로 구성된 의정 홍보관과 역대 의원사진 및 시대별 의정활동 사진자료를 게시한 역사관을 설치해 청사 방문객(7천 158명), 본회의 방청객(1천283명)에게 의회의 역할에 대해 홍보했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의장선거, 2분 발언, 안건처리를 통해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청소년의회 교실에 26개교 1천154명이 참여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 지원 활동으로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정토론회(15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외국의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위해 미국 뉴저지주 의회, 중국의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2016년 4월 예정)을 유치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



道花 : 백일홍 **道鳥** : 까치

道木 : 은행나무 **캐릭터** : 신명이

도청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도지사 : 송하진(宋河珍)

개관

연혁 고려 현종 9년(1018년) 전라남·북도인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처음으로 전라도라 칭하고 전주에 관찰사를 뒀으며 1896년 전국을 13개 도로 개편할 때 전라도를 남북으로 분할하고 전북에 26개 군을 뒀다.

1897년 구례군이 전남으로, 무장, 흥덕, 고창이 전북에 편입됐으며 1931년 전주면이 전주읍으로, 익산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이리읍으로 개칭됐고, 정주면이 정주읍으로 승격됐다. 1935년 10월 전주읍이 부로 승격, 완주군이 분리되고 1947년 이리읍이 이리부로 승격, 익산군이 분리된 후 1949년 8월 전주·군산·이리부가 시로 승격됐다.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금산군과 익산군 황화면이 충남으로 이관되고, 충남의 어청도와 개야도가 옥구군에, 전남의 위도면이 부안군으로 편입됐다.

1973년 7월 1일 완주군 봉동면이 봉동읍으로, 1979년 5월 1일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고 1980년 12월 1일 옥구군 옥구면과 미면이 각각 옥구읍과 미성읍으로 승격됐다.

1981년 7월 1일 정읍군 정주읍과 남원군 남원읍이 각각 시로 승격됐고, 1985년 10월 1일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 초촌면이 읍으로 승격됐으며 1988년 7월 전주에 완산·덕진 2개 출장소가 신설됐다. 1989년 1월 김제군 김제읍이 시로 승격되고 5월 1일 전주의 2개 출장소가 구청으로 각각 승격됐다.

1995년 1월 1일 옥구군이 군산시로, 전주시와 정읍군이 정읍시로, 남원군이 남원시로, 김제군이 김제시로 통합됐고, 1995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이 익산시로 통합됐다.

면적·인구·행정구역 총면적은 전 국토 면적의 8.1%인 8천67.25km²이며 그중 임야가 4천493.6km²(55.7%)이고 논과 밭이 2천171.42km²(26.9%) 등이다.

(2015년 12월 말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	인구(명)		
			계	남	여
합 계	8,067.25	782,986	1,869,711	930,255	939,456
전주시	205.57	254,710	652,282	321,515	330,767
군산시	395.85	114,382	278,398	141,328	137,070
익산시	506.53	122,857	302,061	150,621	151,440
정읍시	692.78	52,203	115,977	57,335	58,642
남원시	752.20	37,213	84,856	41,634	43,222
김제시	544.81	41,438	88,721	43,957	44,764
완주군	820.99	40,750	95,303	48,889	46,414
진안군	789.14	12,571	26,203	13,116	13,087
무주군	631.86	11,821	25,220	12,484	12,736
장수군	533.28	10,909	23,277	11,521	11,756
임실군	597.32	14,269	30,271	15,368	14,903
순창군	495.96	13,784	30,248	14,679	15,569
고창군	607.86	28,671	60,046	29,672	30,374
부안군	493.10	27,408	56,848	28,136	28,712

* 전주시 가구수 : 25만4천710가구(완산구 14만2천810, 덕진구 11만1천900)

도내 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곳은 완주군(821km²)으로 전체면적의 10.2%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좁은 면적의 시는 전주시(205.57km²)이고 군은 부안군(493.10km²)이다.

인구는 2015년 12월 말 현재 총 186만9천711명으로 2014년도 같은 기간 187만1천560명에 비해 1천849명이 감소했다. 전북의 자치단체는 6개 시 2구 8개 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25개의 유인도와 78개의 무인도가 있고 도서 중 가장 큰 유인도는 위도다.

재정

2016년 예산규모 전라북도 총예산은 13조999억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22%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조4천55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6천448억원이다.

전북도 본청의 총규모는 5조2천644억원으로 2015년보다 1천278억원(2.49%)이 증가됐고, 이중 일반회계는 4조4천7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천857억원이다.

시·군 예산의 총규모는 7조8천355억원으로 2015년보다 1천568억원(2.04%)이 증가됐고, 이중 일반회계는 6조9천76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천591억원이다.

전북도 본청의 일반회계 4조4천787억원 중 세입은 지방세 9천43억원, 세외수입 466억원, 지방교부세 6천396억원, 국고보조금 2조6천508억원이다.

중점 추진사업

중앙정부 재정집행 확대 방침에 동참하여 수출과 소비 감소 부작용 최소화를 유도했다.

설(2월 8일)명절 전통시장 애용 캠페인 전개와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100억원)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및 새만금 단지에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에 나섰다.

특히 지정된 전북연구개발 특구에 연구소·기업 설립 5개 및 전북 테크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R&D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산업 전략기지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메가 탄소밸리 조성,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사업 국가 사업화, 탄소 관련 기업체 240개 유치를 통해서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ICT 융·복합 농업용 드론산업 추진, 바이오컴비나트 기술개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성공창업을 확산한다. 탄소, 농생명, 관광 등 특화산업 창조기업 육성(2016년 100개) 펀드 400억 원을 조성한다.

2016 특색사업

농산물 최저가격제 보장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삼락농정(三樂農政)'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전북도가 새해에 '농산물 최저 가격제'를 도입한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는 농민이 농산물 가격 폭락 등을 걱정하지 않고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최저가격을 보장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농어민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삼락농정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저가격제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에도 전북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전북관광 자유이용권 도입 전북에서는 또 올해부터 카드 한 장으로 도내 구석구석을 관광할 수 있다. '전북관광 자유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이 제도는 놀이시설 자유이용권처럼 관광 패스를 구입해 전북의 모든 관광지에는 물론 교통, 숙박시설, 음식점, 공연 관람 등을 모두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전주와 완주에서만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 시스템을 올 하반기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와 숙박, 음식, 공연 등을 한데 모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한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의 하나이다.

이 이용권으로 관광지를 무료입장하고 공영주차장을 2시간 내에서 무료 사용할 수 있으며 숙박과 맛집·카페, 공연, 체험 등과 관련한 특별가맹점에서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제

동향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내수관련 경공업 확대(6.2%)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공업 감소(-12.7%)로 2014년

2016년도 전라북도 본청 일반회계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	구성비(%)	2015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비고
세입	합 계	44,787	100.00	44,477	100.00	310	0.70	
	지방세수입	9,043	20.19	8,250	18.55	793	9.62	
	세외수입	466	1.04	530	1.19	△64	△12.10	
	경상적 세외수입	199	0.44	206	0.46	△7	△3.44	
	임시적 세외수입	267	0.60	324	0.73	△57	△17.59	
	지방교부세	6,396	14.28	6,715	15.10	△319	△4.75	
	보조금	26,508	59.19	26,804	60.27	△296	1.10	
	지방채	0	0.00	0	0.00	0	미발행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74	5.30	2,178	4.90	196	8.97	
	보전수입 등	884	1.97	653	1.47	231	35.25	
내부거래	1,490	3.33	1,525	3.43	△35	△2.30		
세출	합 계	44,787	100.00	44,477	100.00	310	0.70	
	일반공공행정	3,620	8.08	3,570	8.03	50	1.41	
	공공질서 및 안전	1,340	2.99	1,286	2.89	54	4.16	
	교육	2,097	4.68	1,790	4.03	307	17.17	
	문화 및 관광	2,144	4.79	2,038	4.58	106	5.19	
	환경보호	2,948	6.58	3,475	7.81	△527	△15.16	
	사회복지	15,504	34.62	15,259	34.31	244	1.60	
	보건	679	1.52	716	1.61	△37	△5.14	
	농림해양수산	8,083	18.05	7,989	17.96	94	1.17	
	산업·중소기업	1,263	2.82	1,128	2.54	135	11.97	
	수송 및 교통	1,182	2.64	1,102	2.48	80	7.31	
	국토 및 지역개발	2,218	4.95	2,549	5.73	△331	△12.99	
	과학기술	132	0.30	95	0.21	37	39.71	
	예비비	494	1.10	540	1.21	△46	△8.63	
	기타	3,083	6.88	2,940	6.61	143	4.87	

2016년도 전라북도 및 시·군 예산편성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			2015년			증 감	
	계(A)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B)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C=A-B)	증감률(%)
합 계	130,999	114,551	16,448	128,153	112,922	15,231	2,846	2.22
도 분 청	52,644	44,787	7,857	51,366	44,477	7,889	1,278	2.49
시·군 계	78,355	69,764	8,591	76,787	68,446	8,341	1,568	2.04
전 주 시	13,403	11,469	1,934	12,834	10,850	1,984	569	4.43
군 산 시	9,348	7,450	1,898	9,239	7,670	1,569	109	1.18
익 산 시	9,304	8,210	1,094	9,064	7,684	1,380	240	2.65
정 읍 시	6,217	5,640	577	6,146	5,514	577	71	1.16
남 원 시	5,145	4,729	416	5,068	4,665	416	77	1.52
김 제 시	5,224	5,015	209	5,639	5,433	209	-415	-7.36
완 주 군	5,947	5,609	338	5,750	5,438	338	197	3.43
진 안 군	3,168	2,771	397	3,133	2,738	397	35	1.12
무 주 군	2,921	2,504	417	2,850	2,384	417	71	2.49
장 수 군	2,660	2,232	428	2,471	2,180	428	189	7.65
임 실 군	3,192	2,967	225	3,105	2,966	225	87	2.80
순 창 군	3,013	2,853	160	2,911	2,768	160	102	3.50
고 창 군	4,393	4,254	139	4,303	4,177	139	90	2.09
부 안 군	4,419	4,060	359	4,276	3,978	359	143	3.34

동월대비 8.9% 하락했다. 수출은 자동차 증가세(9.3%) 반전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 원료(-40.0%)와 자동차 부품 부진으로 2014년 동월대비 25.6% 감소한 6억510만 달러로 축소됐다.

계절적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수출 동시 부진이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지역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출과 소비 감소의 부작용을 진정시키기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확대로 단기 안정화 유도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고용 전북 경제활동 인구는 88만천 명(2015년 12월 기준)으로 2014년 동월대비 1만2천 명이 늘었다. 노동가능 인구는 153만천 명으로 2014년 동월대비 6천 명이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7.5%(전국평균 61.9%)로 전년 동월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또 취업자는 86만5천 명으로 2014년 동월대비 1만4천 명이 증가했다.

농림어업(1만4천 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3천 명)이 증가했으나 광공업(3천 명)은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 구성비를 보면 1차 산업이 13.8%, 2차 산업이 13.8%, 3차 산업이 72.4%다. 고용률은 56.5%(전국평균 59.9%)으로 2014년 동월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사 회

보건 및 사회보장 전북도 내에는 2천220개의 각종 병원에 3만5천852개의 병상이 준비돼 있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은 11개소에 3천520개 병상이 있으며, 병원은 69개소 7천785병상이 있다. 의원은 1천68, 치과병(의)원 491, 한방병원 20, 한의원 473, 보건의료원 4, 보건소 10, 보건지소 151, 보건진료소 23, 특수병원 7개소 등이 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9천554개소 가운데 417개소 생활시설에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한 부모, 아동 등 1만1천707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노인시설이 236개소로 가장 많고 장애인 73, 아동 62, 사회복지 17, 한 부모 7, 청소년 쉼터와 노숙인시설 각각 5, 정신요양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도 각각 4개소가 있다.

복지시설 입소자는 노인이 7천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1천938명, 아동 998명, 정신요양 751명, 사회복지 481명, 한 부모 113명, 노숙인 219명, 가정폭력 43명, 청소년쉼터 33명, 성매매 성폭력시설 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시설로는 노인분야 915개소를 비롯 장애인분야 91, 아동분야 291, 여성분야 31, 어린이집 1천658, 경로당 6천472, 청소년 50개소 등 총 9천554개소이다.

소방·구조 구급 2014년도 소방활동 분석 결과, 도내에서 총 1천65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과 부상 57명이 발생했다. 1일 평균 4.5건의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장소별 화재 건수는 비주거시설 635건, 주거시설 497, 기타 269, 자동차 251건 순으로 많았다. 구조 활동은 출동 건수 총 2만2천896건에 5천802명이 구조됐다.

2014년 구조 활동은 벌집 제거를 비롯 출입문 시건 개방, 동

물 구조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구조활동이 1만2천9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 5천18건, 산악 547건, 기타 4천397건으로 집계됐다.

구급활동의 경우 6만9천389건 출동해 7만1천684명에 대한 구급활동을 펼쳤다. 질병 출동 건수가 3만5천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1만7천701건, 교통 1만1천202건 순이다.

119 상황실을 통한 응급처치 지도, 질병 상담 등 의료상담도 5만82건이 이뤄졌다. 호남권 유일의 임실 119안전체험관을 통해 안전체험활동을 받은 내방객들이 10만 명을 돌파(총 10만1천331명)했으며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활동을 확산, 모두 7만8천26명이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 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문 화

문화재 판소리가 세계무형유산으로 선정되고 고창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비롯 김제 금산사 미륵전, 익산 미륵사지 석탑,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정읍시 의안백 이화 개국공신녹권,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초조본 대방 광불화엄경 주본 권제36 등 모두 8점의 국보급 문화재가 보관되고 있다.

전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모두 827개(명)로 국보 8, 보물 88, 사적 및 명승 39, 천연기념물 31, 중요민속자료 13, 중요무형문화재 9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189개(명)이며, 지방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06, 무형문화재 77, 기념물 110, 민속문화재 35 등 435개(명)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재자료 155점과 등록문화재 48점이 있다.

국·도립공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호인 지리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천하제일의 단풍절경을 자랑하는 내장산, 반딧불이가 살아있는 덕유산, 국내 유일하게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변산반도 등 4개소의 국립공원이 있다.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대둔산 도립공원과 1억년 신비가 숨 쉬는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인 마이산, 호남평야의 젓줄인 모악산, 동백나무 숲이 수놓은 선운산 등 도립공원은 4개소, 역사 숲으로 유명한 장안산과 자연 그대로의 신비경인 강천산 등 2개의 군립공원이 있다.

관광 맛과 멋, 소리의 고장 전라북도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보존·전승하고 있는 예향이자, 수려한 풍경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청정의 땅이다. 도내 산악휴양권과 새만금권, 역사문화권, 전통예술권, 해양문화권 등 모두 21개소의 관광지가 지정돼 있다.

특산물 전주의 태극선과 합죽선, 미나리, 이강주, 이미주, 완주의 동상 곱감, 감식초, 대추, 익산의 귀금속과 황등 석공예, 군산의 생선회와 울외장아찌, 김제의 금산 붓과 신평장고, 심포항의 백합, 쌀, 정읍의 복조리, 부안의 김, 쌀, 백합, 개암죽염, 고창의 복분자주, 풍천장어, 수박, 고수자기, 무주의 사과와 호두, 진안의 인삼, 표고버섯, 장수의 사과와 곱돌, 오미자, 남원의 목기, 임실의 담뱃대와 한지(일종리), 관촌 고추, 순창 고추장 등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특산 명물의 보고가 바로 전북이다.

특히 한국 고유 음식의 전주 비빔밥과 순창 고추장은 전통 적 맛의 고향으로 더욱 이름이 나 있다.

문화행사 문화행사로는 세계소리축제, 세계서예전북비엔날 레, 전주국제영화제, 춘향제, 김제 지평선 축제, 무주 반딧불이 축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등이 열리고 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와 전주-군산 벚꽃축제, 익산 보석문화축제,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정읍 내장산 단풍부부사랑축제, 군산 철새축제 등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채로운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장〉 김영배

〈부의장〉 황헌, 이상현

의장과 행정자치위원장 교체 전북도의회는 새 의장에 김영배(익산2) 의원이 선출됐다.

김영배 신임 의장은 1월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의 의장 보궐선거에서 투표 참가자 32명(전체 36명) 중 30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또, 행정자치위원장에는 양성빈(장수) 의원이 뽑혔다.

이들의 임기는 제10대 의회 의장단의 잔여 임기와 마찬가지로 6월 말까지 5개월 남짓이다.

이날 보궐선거는 김광수 전 도의장과 김연근 전 행정자치위원장이 4·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의원직을 사직한 데 따른 것이다.

의원 전문성 강화 주력 제10대 전북도의회는 2015년 민생과 현안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의원들은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송하진 도지사과 김승환 교육감을 의회로 불러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정 및 교육행정 기준 제시, 잘못된 행정 적극 시정 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잘못된 행정은 적극 시정하는 감사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

제10대 의회 들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204건으로 의원별 평균 5.4건이다. 이는 광역의회 중 대전시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도 단위에서는 가장 많다.

또, 2015년에는 177건으로 9대 같은 기간 83건에 비해 21배 늘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노인, 아동, 비정규직근로자, 농어업인 육성, 체육,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36일간 열린 제32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모두 910건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이는 제9대 의회 같은 기간 620건에 비해 46.7%(290건) 늘어난 결과다.

8조원 규모 예산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 전북도 예산안 5조2천459억원 및 도교육청 2조6천882억원 등


모두 7조9천341억원과 2015년도 추경예산 8조5천694억원(도 5조7천383억원, 도교육청 2조8천311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연구 중심의 의회, 정책토론회 확대 왕성한 입법 활동은 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됐다. 타시·도에 비해 뒤처진 전북의 발전과 다양한 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 분야별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찬회와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면서 학습의 보폭을 넓혔다.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활발하게 추진해 집행되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현장중심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개 상임위원회가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과 전주장학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찾아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을 찾았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혁신도시 공공하수처리방안과 요양병원, 의료원, 새만금 현지를 찾아 수질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탄소산업 추진현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여부 등을 확인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전북선수단을 격려하고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을 방문해 노후시설의 즉각적인 환경개선과 대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부실공사나 감독 및 감리 여부 등을 진단했다.



전라남도



道花 : 동백 **道鳥** : 산비둘기

道木 : 은행나무 **캐릭터** : 남도와 남이

도청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도지사 : 이낙연(李洛淵)

개관

연혁 마한의 옛터로 근초고왕 때 백제에 속하게 됐고 고려 성종(995년) 때 해양도로 불려진 뒤 전라도·전광도로 개칭되면서 전라북도와 동일문화권에 속하다가 조선 고종 33년(1896년)에 이르러 전북과 나누어져 지금의 전라남도가 탄생됐다.

전남은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은 백두대간의 처음이자 끝자락인 지리산 등의 높은 산지로, 서남은 낮게 펼쳐진 평야와 다도해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지와 평야의 비율은 3대1로 전국적으로 볼 때 평야가 많은 편이며 비교적 온난하고 다습한 온대기후지역에 속한다.

특히 서남해안은 전국 도서의 65%에 해당하는 2천219개의 유·무인도와 함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6천743km에 이르는 리아스식 해안선이 어우러져 천혜의 경관을 이루고 있다. 서부